

# 정보사회 및 뉴미디어의 전망



인간사회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뉴미디어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와 뉴미디어는 21세기를 규정짓는 핵심요소가 된다.

노순규 /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정보사회의 정의와 사회변화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첨단 정보통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생활한다.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최신의 컴퓨터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발행하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과도 온라인상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 사실 정보사회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경제생활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보다 본질적인 특징은 정보가 단순히 경제적 혹은 산업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 등과 관련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또한 인간사회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뉴미디어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와 뉴미디어는 21세기를 규정짓는 핵심요소가 된다.

과거에는 각종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이른바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뉴미디어들은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디어 자체가 사람들을 모으고 대화를 나누고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참

여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정보사회의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주장이나 사건, 경제정책 및 경제동향, 문화양식 및 행사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주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서 정치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치참여의 장소, 상품생산자와 소비자가 전자거래를 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시장, 새로운 영화, 음악, 미술 등을 직접 감상하는 문화공간, 필요한 학습지식과 정보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 등 복합적 기능을 한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상소설에서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불과 몇 년전만해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사실들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10년을 예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 뉴미디어의 영향

뉴미디어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개혁이나 혁신이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는 처음에 의도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처음에 바라는 것의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측된 변화일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도 상존한다는 점이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보과잉, 인간소외,

계층간 및 국가간 정보격차,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사회적 쟁점들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하여 변화에 직면할 때 마다 제기된 역사적 관심사이다. 그런데 멀티미디어로 상징되는 20세기말의 뉴미디어 환경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20세기초 라디오의 등장과 20세기중반 TV의 등장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과 비교할 수 없다.

뉴미디어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는 과연 뉴미디어 환경이 제공하는 채널과 미디어의 양적 증대, 그로 인한 정보의 급격한 홍수가 몰고 올 부작용은 없는가이다.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각종 첨단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각종 뉴미디어들은 기존의 제한된 무선 및 유선미디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와 오락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 우리는 3개 정도의 TV채널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공중파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를 통해서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보고싶은 영화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영화관을 찾거나 TV에서 방영되기를 기다렸던 과거와는 달리 비디오카세트나 비디오 디스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대여하여 볼 수 있고 신청해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자미디어인 경우에도 기존의 신문, 잡지, 책 등을 통해 주로 얻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비디오텍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처럼 뉴미디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결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미디어 이용여건에 따라 적절한 정보채널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취향, 관심, 전문분야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가능성과 실제 수용자들의 수용능력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유료케이블TV가입자의 80%가 2-3개의 오락채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의 다양화와 미디어의 수적인 증가가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장시켜 주었지만 그것이 곧 이용자들의 이용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른바 '정보과잉'이라고 한다. 정보과잉이란 원래 개인이나 시스템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처리의 장애현상을 말한다. 이처럼 정보과잉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즉, 정보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정보소비율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투입이 증가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사람이나 조직의 정보처리능력도 함께 증가하지만 그것이 일정수준의 한계점을 넘어 서면 오히려 정보수용능력이나 이해력이 파괴되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행동을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의 전체 미디어 노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각 미디어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저하되며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노출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 정보비용과 정보격차

뉴미디어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사회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와같은 비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기의 구입을 위한 비용이다. 컴퓨터 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검색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정보검색 단말기는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혹은 일반가정에 무료로 임대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보이용자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둘째, 정보이용료이다. 정보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정보량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공자료인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지

만 전문적인 정보는 유료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정보활용지식에 대한 비용이다. 정보단말기나 정보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방법의 난해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습은 최소한의 지적수준과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물론 이 때에도 국가가 공공단체 혹은 기업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 자체가 시간이라는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더구나 정보사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층일수록 더 많은 시간적 비용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 비용이 정보화 초기단계에서는 일반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각종 편익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상층계급 혹은 엘리트계급에게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격차가 계급사회를 반영하듯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매스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수용자층과 정보를 별로 갖지 못한 비수용자층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는 가설을 토대로 볼 때 매스미디어는 본질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용자들에게 보다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주장을 들면 다음과 같다.

### 〈 정보격차의 내용 〉

① 모든 수용자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②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량은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의 정보량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량이 많은 층과 적은 층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③ 정보과잉 현상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취사선택해

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

④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기 이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격차를 야기할 것이다.

### 향후 전망과 맺음말

오늘날 정보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진 메세지나 서비스를 별개의 개별적 미디어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멀티미디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같은 현상을 두고 디지털 혁명에 의한 문명사적 대전환기 혹은 인류문명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인류역사상 존재하였던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뉴미디어에 의해 인간 개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기관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결과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늘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뉴미디어 혁명의 발달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과학과 공학이 선택한 것이며 인간은 그에 대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정보사회가 초래할 변화의 영향권내에 우리 모두는 공존하고 있으며 공존의 가치는 정보에 의해 좌우되며 또한 공존의 유대감과 상호작용성의 뉴미디어들에 의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 무한히 전개될 정보사회의 미래는 본래적으로 그 한계와 가능성의 존재 모두는 우리 인간에게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